

# KIPA 컬럼

우리나라 經濟의 持續的인 高度成長과 輸出의 伸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技術革新을 통한 産業構造의 高度化와 産業組織의 合理的인 再編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常識的인 이야기다. 따라서 우리나라 企業들도 工業所有權의 活用으로 技術開發을 促進하여 尖端發明을 中心으로 한 尖端技術商品生産으로의 體制 轉換이 時急하다는 것도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와 같은 當爲性에 비추어 本會가 尖端技術開發과 輸出을 뒷받침할 工業所有權 制度上的 모든 對企業 支援事業을 展開해 나가고 있음은 時間을 더 할수록 더욱 實感있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제 그 열매가 하나 둘씩 맺혀지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本會가 推進해온 여러가지 支援事業 가운데 가장 刮目할만한 것은 企業內 特許管理 專擔部署의 設置勸奨과 專擔要員의 養成 및 研修라 하겠다. 本會는 금년에도 지난 4月 8일부터 22일까지 15日동안 多數의 會員企業代表를 비롯한 特許管理專擔要員들과 發明人이 유럽地域을 訪問하여 世界第一을 자랑하는 그들의 工業所有權制度 및 企業의 特許管理 狀況을 調査 研究함과 아울러 세미나와 研修를 마치고 돌아왔다.



<프랑스特許廳 訪問 기념촬영>

## 앞서가는 유럽

### 유럽에서의 工業所



<WIPO 세미나>

WIPO와 EPO 그리고 西獨·프랑스·이태리 特許廳 및 特許協會등을 비롯한 工業所有權 關係機關 訪問·WIPO세미나를 비롯한 2회에 걸친 세미나 開催·SIEMENS會社와 BMW自動車會社 訪問 特許管理 狀況 調査研究·自由見學등을 통해 지난 어느 海外研修보다도 폭넓은 知識 習得으로 特許管理 業務에 큰힘이 됨은 물론 우리나라 工業所有權의 유럽 進출을 가능할 수 있는 좋은 契機가 된 것으로 評價되고 있는 이번 海外研修를 마치고 돌아온 參席者들이 한결같이 느낀 것은 유럽地域의 先進企業들이 採擇하고 있는 特許管理制度 가운데 우리나라 企業이 본 받아야 할 事項은 時急히 導入하여 우리의 實情에 맞게끔 消化하여 改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유럽地域에서 企業內 特許管理狀況의 調査 研究次 訪問한 企業은 SIEMENS會社와 BMW 自動車會社 등인데 이들 企業의 特許管理 特徵은 最高經營者 直屬下에 特許部(課)長이 情報蒐

# 企業의 特許管理

## 有權 現地研修를 마치고



全 吉 鎬

〈本會 調査部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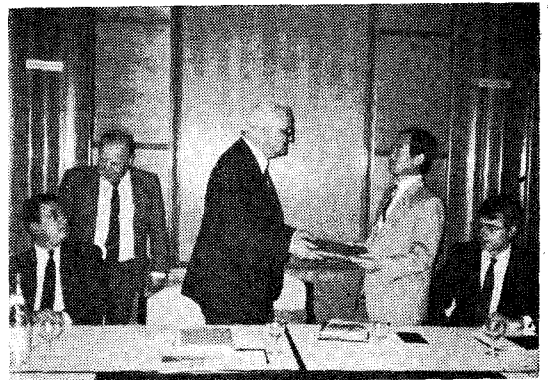


〈西獨特許廳 訪問〉

集에서 出願·設權·라이선스·特許紛爭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責任을 지고 있을뿐 아니라 社內 他部署와 緊密한 連絡으로 生産·販賣·輸出에서 發生되는 特許關聯 問題에 이르기까지 解決해주는 그야말로 全社의 特許管理體制를 갖추고 있었다.

더우기 企業內 特許認識提高를 위한 社內外研修 및 職務發明補償制度 그리고 提案制度를 最大限으로 活用하고 있음은 우리나라 企業들이 하루빨리 본 받아야 할 事項들이라고 參席者들은 입을 모았다.

따라서 우리나라 企業들도 此際에 特許管理 專擔部署를 設置하지 않은 企業은 서둘러 設置하고, 이미 設置한 企業도 先進外國企業의 좋은 制度는 果敢히 導入하는 등 特許管理 專擔部署가 그 機能을 다 할 수 있도록 最先의 配慮를 다해야 하겠으며, 이때의 失機는 企業의 百年大計를 그릇치게 된다는 것을 銘心해야 겠다.



〈프랑스 特許協會 Couste 이사장에게 紀念品 전달〉

끝으로 研修日程 및 主要活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4月 8日(水)  
金浦出發(KE901)
- ◇ 4月 10日  
WIPO訪問 및 세미나
- ◇ 4月 11日  
제네바 國際發明展 見學
- ◇ 4月 13日  
퀸헌特許法律事務所 訪問
- ◇ 4月 14日  
독일特許廳 訪問  
유럽特許廳 訪問 및 세미나
- ◇ 4月 15日  
SIEMENS會社 및 BMW自動車會社 訪問
- ◇ 4月 16日  
프랑스 特許廳 및 特許協會 訪問
- ◇ 4月 17日  
프랑스 企業訪問
- ◇ 4月 20日  
이태리 特許廳 訪問
- ◇ 4月 22日  
金浦到着 (㉟)